

크리스마스 썰의 뿌리를 찾아서

글 신인섭 |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
1929insshin@naver.com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2년에 (현재는 이북인 황해도) 해주구세요양원(海州救世療養院)에서 크리스마스 썰이 시작되었다. 창시한 사람은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 11. 10-1991. 4. 5.)이었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썰은 남대문 그림이고 ‘XMAS AND NEW YEAR GREETINGS 1932-1933’, 그 밑에 ‘보건(保健. GOOD HEALTH)’이라는 한문 글자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海州救世療養院’이란 글과는 방향이 다르다.



1 셔우드와 마리안 홀 부부



- 2 1904년 시작한 세계 최초 덴마크 크리스마스 스티
- 3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거북선 크리스마스 스티 도안
- 4 '닥터 홀의 조선회상'에 수록된 스티 도안
- 5 남대문 그림이 있는 1932년 최초의 스티

- 6 1934-35년에 발행된 크리스마스 스티
- 7 김기창 화백이 그린 1937-38년 스티
- 8 한국의 역대 크리스마스 스티
(좌측부터 1932년 스티 초판, 1933년, 1934년, 1936년, 1938년, 1939년)

처음에 홀 박사가 결핵 퇴치 사업에 착안하게 된 동기는 어머니가 동생처럼 생각해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도록 도운 박 에스더가 폐병으로 사망한 것을 본 뒤였다 한다.

처음 고안한 그림은 한국 사람들이 숭앙하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림으로 했는데 되도록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스티 운동에 참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지만 일본 당국의 거부로 남대문으로 바꾸었다.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뻔했다.(이 거북선 디자인은 지금 캐나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첫 번째 스티는 모두 3만 5천 장을 발행했으며 수입은

850엔(圓)이었다. 스티 한 장당 가격은 1전(錢)이었다. 1932년 일본 850엔은 현재 한국 돈 3억 350만원에 해당된다. 그 뒤 크리스마스 스티 발행은 1940년까지 9회 계속되었는데 1940년에는 홀이 일본 당국의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풀려 난 뒤 유죄가 되어 이듬해에 인도에서 결핵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스티의 소재는 한국 전통문화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1937-1938년 스티인데 이 도안은 당시 젊은 화가로서 이름이 난 윤보 김기창(雲甫金基昶)화백의 작품으로 그이 나이 24세 때였다. 이 스티 그림은 평양 대동문을 배경으로 대동강에서 팽이



9



10



11



12



13

- 9 25세 무렵의 로제타 홀
 10 로제타 홀과 아들 셔우드, 어려서 사망한 딸 에디스
 11 로제타 홀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 보구여관(보호하고 구하는 여성의 집)에서 일했다
 12 셔우드 홀의 공적비와 셔우드의 부모 묘비(우측)
 13 1936년 11월 22일 Seoul Press에 게재된 SEASON'S GREETINGS.크리스마스 썸 광고.
 맨 밑에 'COURTESY OF NEW ILHAN CO.'이 있다

놀이를 하는 두 어린이와 애를 업고 구경을 하고 있는
 처녀의 그림이다.

셔우드 홀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윌리
 엄 홀(William Hall)은 1891년에 역시 의료 선교사로
 서울에 와서 같은 의료 선교 여성 로제타(Rosetta)
 홀과 결혼하고 1년 뒤 평양 선교 개척의 책임을 맡고
 평양으로 갔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평양에
 서 전쟁 중 각종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만 전염병에
 걸려 한국에 온지 3년만인 1894년 11월 서울에서 사
 망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로제타 부인은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

다. 그녀는 남편을 기념하는 기흥병원을 평양에 세우
 고 직접 부인과장으로 일했다. 이 때 네 살 난 딸이 이
 질로 죽었다. 평양에서는 최초로 맹아학교를 세웠다.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도 개발했다. 뒤에 서울로
 와서는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
 였다.

아들 셔우드 홀이 대를 이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
 사가 된 그는 역시 의사인 마리언(Marian)과 함께 의
 료 봉사를 했다. 셔우드와 마리언이 감리교 선교사
 로 해주에 온 것은 1926년 4월이었다. 그리고 1928년
 에 해주 폐병 요양원을 세우고 1932년에는 크리스마스
 썸 운동을 시작했다. 첫해 3만 5천장의 썸 판매로



14



15



16

- 14 1933년 11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 “전조선 폐병 박멸코저 크리스마스 선물 발행”이란 큰 제목과 “정말(덴마크) 폐결 박멸 운동 본 따서 해주 구세요원 중심”이란 부제목이 있다
- 15 1953년 대한결핵협회 발행 선물
- 16 2008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과 우주과학기술’을 제명으로 대한민국 최초 우주비행을 기념한 선물

모은 돈은 850엔이었다. 당시 일본 돈 1엔은 미국 달러로 17달러였고 1932년의 1달러는 지금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8달러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850엔은 지금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3억원이 넘는 돈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40년 그는 간첩으로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인도로 가서 폐병 관련 의료 업무를 하다가 1963년 은퇴 후 캐나다 밴쿠버에서 별세했다. 1992년 4월 10일 부모와 가족이 묻힌 서울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운동이 부활한 것은 1950년대 초였고 1953년의 대한결핵협회가 발행한 선물은 그림과 같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이소연을 기념하는 선물이 발행되었다.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업은 유한양행이었는데 이 회사가 1930년대 한국에서 발행되던 유일한 영자 일간 Seoul Press와 우리말 신문 광고에 여러 개가 남아 있다. 1936년 11월 22일 서울 프레스에는 역시 유한양행이 광고비를 스폰서한 한국 크리스마스 선물 위원회 광고 성탄 인사, Seasons Greetings이 있는데 한 편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 광고 끝에 있는 COURTESY OF NEW ILHAN CO.라는 것은 유일한회사 찬조라는 뜻으로 광고비를 지원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NEW ILHAN이란 말은 물론 유한양행 창립자 유일한인데 그의 출생지인 평안도 지방에서는 한문 글자 ‘유(柳)’를 ‘누’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NEW’라고 썼을 것이다.

“내가 크리스마스 채권을 샀기 때문에
단 한 명 어린이라도 더욱 튼튼해지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한 일은 노래가 될 것이다!
누군가 건강을 되찾게 되어
어디든 어느 한 가정에서
따뜻한 등불이 더욱 즐겁게 비치게 되면
그것은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많은 사람이 건강과 봉사의 길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한국 크리스마스 선물 위원회(광고 제공은 유일한 회사)”

양화진 외국 선교사들의 묘원에는 셔우드 홀과 그의 부인 그리고 이들의 부모와 어려서 사망한 여동생, 홀(Hall) 일가 가족들이 묻혀 있다. 그들이 뿌린 씨는 열매를 맺어서 대한결핵협회가 매년 뜻 깊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은 갔지만 이들이 남긴 일은 가지 않고 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주제는 한국 문화였다. 한 번 예외는 2008년에 한국 최초의 이소영여성 우주비행사였다. ㉠



신인성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세대 광고인으로 국내 광고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기여했다. 은퇴 후 20여 년간 다수의 논문·저서 집필과 광고계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